

진화하는 스포츠용 기능성 소재(3)

데이진 프론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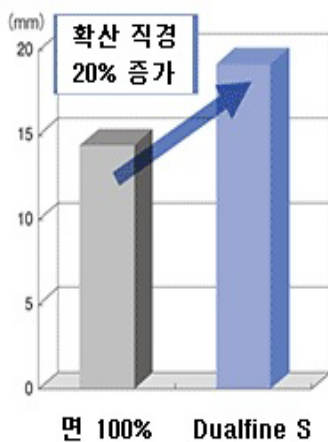
데이진 프론티어는 땀열룩 방지소재 ‘Dualfine’을 개발하였다. 이 소재는 코팅을 통해 발수기능을 부여한 기존 제품과 비교해 원사 단계에서 기능을 부여한 것이 특징으로 발수제를 혼입한 폴리에스터 장섬유를 사용하고 있다.

‘Dualfine’은 편성물로 피부측을 흡수확산층, 표면측이 발수층으로 2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신체에서 땀이 발생하면 피부측에서 흡수확산하는 것과 동시에 표면측에서 발수되기 때문에 땀열룩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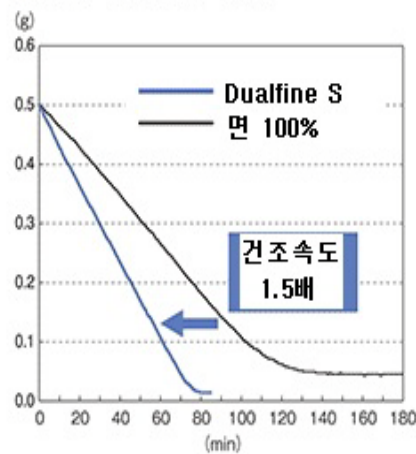


<땀열룩방지 ‘Dualf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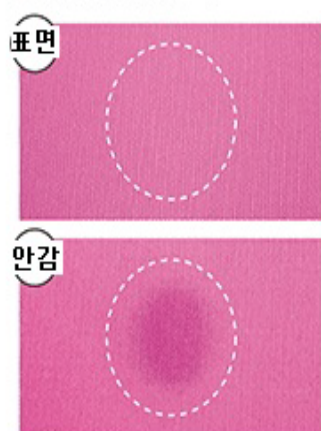
■ 수분 확산 직경



■ 원단에 함유된 수분량



■ 물에 젖은 상태



< ‘Dualfine S’ 기능성 데이터 >

또한 이 소재는 편성물이기 때문에 통기성이 우수하며, 피부측에 일반 폴리에스터, 표면측에 발수제를 혼입한 폴리에스터 장섬유를 사용하였다. 폴리에스터 발수섬유는 섬유내의 발수기 간격을 염료 입자보다 크게 하여, 염색성도 우수하다. 그리고 원료단계에서 혼입한 타입이기 때문에 코팅에 비해 내세탁성도 우수하다.

이 소재는 인터넷 판매용 여성용 T셔츠나 컷 소(cut sew)로 먼저 상품화되었으며, 스포츠 이외에 캐주얼이나 속옷, 유니폼 용도로도 전개되고 있다.

데이진 프론티어에는 이와 동일한 폴리에스터 발수사를 사용하는 소재로 ‘Tripledry Carat’이 있다. 이 소재는 ‘Dualfine’과는 반대로 피부측에 발수사를 배치한 땀처리 기능소재이다. 텍스타일 구조를 통해 수분을 표면의 흡수확산층으로 보내어, 건조한 느낌을 유지해준다. ‘Dualfine’ 보다 먼저 2013년 추동시즌 부터 출시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

데이진 프론티어의 ‘Dualfine’의 땀얼룩방지와 ‘Tripledry Carat’의 땀처리 기능을 가진 두가지 소재는 발수사 소재를 이용한 제품이다.

♣ 섬유뉴스(2013.12.13)